넷마블 (251270)

〈일곱개의 대죄: 오리진〉 출시 3 월로 지연

인터넷/게임
Analyst 이효진
hyojinlee@meritz.co.kr

Meritz Research 2026. 1. 19

지난 금요일, 넷마블은 오는 1월 28일 예정이었던 〈일곱개의 대죄: 오리진〉(이하 〈7대죄 오리진〉) 출시를 3월로 지연한다는 결정을 내림. 동 게임은 PC, 모바일 뿐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콘솔을 도전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넷마블에 의미가 있던 게임

언론에 공개된 대로 3월로 지연된다면 본래 계획보다 32일~63일 출시가 늦어짐. 지난 8월 펄어비스의 〈붉은 사막〉 사태와 같이 글로벌 출시 게임들의 잦은 지연이 투자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는데, 같은 맥락에서 지난 금요일 NXT에서 넷마블의 주가는 약 4% 하락을 보임

출시를 2주 가량 앞둔 시점에서의 지연이 당황스러우나 이로 인한 주가 하락 시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해 보임. 실제로 지난 8월 〈붉은 사막〉의 지연 발표 후 주가는 최근 6개월 내 저점에 해당, 이후 낙폭을 모두 회복함. 더욱이 〈7대죄 오리진〉의 경우 〈붉은 사막〉과 달리 1~2달 간의 추가 기다림만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그리 크지 않을 것

타사와 달리 넷마블은 연간 다작을 출시해옴. 투자자의 초점은 〈7대죄 오리진〉이겠으나 지연됨에 따라 〈스톤에이지 키우기〉 등 상반기 준비되어 있던 여타 게임의 출시가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을 것

당사는 〈7대죄 오리진〉의 출시 성과를 한국과 일본에 제한하여 추정함. 만일 넷마블이 현재 소니와의 협업이 성공적으로 발현되어 콘솔에서 성과가 일어나고 과거 〈일곱개의 대죄〉 IP 파워가 북미/유럽에서 발현된다면 실적 추정 뿐 아니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포인트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됨. 대작 출시 지연으로 주가 하락 시 매수 대응을 추천함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